김지장 스님 재조명하는 학술포럼 열려

제2회 한 · 중 지장문화 학술포럼 개최

제1회 세미나 논문에 대한 토론형식
조기정 교수, 법공 스님 등 발표토론
"지장사상 · 생애 재조명 가치 충분,
순례길 조성 등 문화교류 이어가며
이 시대의 지장신앙 가치 구현해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신라 왕자인 김지장 스님(김교각)은 중국 불교성지 구화산에서 지장왕보살로 추앙받았으며 구화산도 지장보살의 성지도량으로 여겨졌다"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과 한국불교문화연합회(대표 김민성)가 구랍 29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제2회 한 · 중 지장문화 학술포럼 : 김지장의 사상과 생애'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0년 12월 13일 송광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회 한 · 중 지장문화 국제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는 조기정 목포대학교 교수가 '신시대 새로운 언어 환경에서 지장문화 연구의 문화적 의의'에 대해, 김희정 한국전각협회 국제분과위원장이 '바다를 건너 임해에 상륙한 김교각 종적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했다.

학술대회에서 조기정 목포대 교수는 김지장 스님의 지장사상과 생애를 언급하며 새롭게 조명할 가치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김지장 스님은 지장보살을 독실하게 믿었으며, 열반 3년 후의 모습이 지장서상과 비슷해 지장보살이 환생한 것으로 믿었다. 구화산도 지장보살의 도량으로 여겨졌다"며 "김지장 스님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원(大願)과 대효(大孝)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된다면 김지장 스님이 지장보살로 환생했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래문화재단과 한국불교문화연합회가 구랍 29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제2회 한 · 중 지장문화 학술포럼 : 김지장의 사상과 생애'를 개최했다.

이어 2부는 '한 · 중 · 일 지장사상의 흐름'에 대해 법공 스님(前 동국대교수)이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제1회 한 · 중 지장문화 국제 화상학술세미나(2020년 12월 13일) 진행후기 및 자료 출판과 더불어 한 · 중 지장문화교류회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참여 대중의 질문을 받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영축총림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의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학술대회는 구화산불교문화연구회가 2018년에 한 · 중 양국 간 김지장 스님에 관한 연구 및 문화교류를 제안 받아 시작됐다. 이후 2020년 5월 김지장 스님의 탄생지인 한국과 당 상륙지 절강성, 성불지 안휘성이 연합해 절강성 임해시에서 학술포럼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양국은 2년에 한 번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됐고, 2년에 1회는 개별 세미나를 별도로 개최해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제1회 학술세미나는 '김지장 사상과 생애'를 주제로 중국 측 35명(중국 절강성 임해 구화동사), 한국 측 35명(조계총림 송광사)이 실시간으로 동시 진행한 바 있다.

김지장 스님은 당나라에서 활동한 신라 출신의 스님이다. 중국 안후이성 주화산(구화산)의 화청사를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속명은 '김교각(金喬覺)'이다. 중국에서는 당 · 송 시대부터 지장에 관한 수많은 설화들이 전해졌으며 특히 입적한 뒤에 시신이 썩지 않고 등신불(等身佛)이 되었다고 알려지면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숭배되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김지장 스님은 중국 불교성지 구화산의 지장왕 보살로 추앙받는다. 오늘 학술대회는 김지장 스님을 다시 조명하는 자리이다"며 "앞으로 학술대회 및 문화교류를 통해 신라 왕자 출신이자 지장보살의 화현으로 일컫는 스님의 삶을 고찰하고자 한다. 스님의 삶과 수행을 널리 선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과 협력해 순례길 조성 및 문화교류도 이어가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장 신앙의 가치를 구현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금요기후행동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가 구랍 31일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제68회 미래를 생각하는 금요기후행동 캠페인'으로 2021년을 마무리했다.

그 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온 울산불교환경연대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을 캠페인으로 마무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울산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해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시민단체 10곳 등 50여 명의 활동가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과대포장 거절 등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환경보존 실천방안을 피켓에 담아 지구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권유했다.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새해에도 기후와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회향

신행수기 시상 및 장학금 전달식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1월 2일 설법전에서 한 달 동안 이어온 화엄산림대법회를 원만 회향했다.

회향법회는 방장 성파 스님의 회향법어, 화엄산림 신행수기 시상, 체육인불자 장학금 전달, 인사말, 영단참배 및 위패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는 이번 화엄산림법회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온 · 오프라인 법석을 진행해 불자들의 동참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모범법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도사는 유튜브와 네이버밴드 화엄의 숲으로 회향법회를 동시 방영했고 4000여 회의 실시간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아울러 회향식에서는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과 불자체육인 학생 장학금 수여식도 개최해 인재불사로 마무리했다.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에서 화엄산림 신행수기 영축총림상을 함강자가 수상했으며, 금강계단상은 서진익, 화엄등묘각상은 최정아가 각각 수상했다. 화엄산림 발원문 부문의 환희지상은 장성윤, 이구지상은 박순연이 수상했다. 이외 청소년 N행시 부문은 박호원 학생을 비롯한 14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체육인불자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이준혁, 신의진, 상서연(이상 경남체육고), 이준영(창원대), 김가인(동원과학기술대) 학생에게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1월 2일 설법전에서 한 달 동안 이어온 화엄산림대법회를 원만 회향했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회향법문에서 "화엄산림대법회에서 법문을 전한 법사 스님들의 〈화엄경〉 말씀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약이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중생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설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한 달 동안 방역 수칙과 안전을 위해 노력봉사해준 모든 사부대중과 법문을 전해준 법사스님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마지막으로 소대에서 영가를 천도할 때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회향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대승불교의 꽃으로 불리는 〈화엄경〉의 의미를 전하고 창건주 자장율사의 1400년 화엄사상을 계승하는 국내 최대 화엄법석이다. 매년 화엄산림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이번 법회는 구랍 12월 4일 입재해 30명의 법사 스님들이 〈화엄경〉 39구품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불자들은 온 · 오프라인으로 산림법회에 동참했으며 회향법석은 10만여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소대의식과 행렬로 마무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락서암, 장학금 1320만원 전달

부산 서구 동대신1동에 위치한 락서암(주지 수월)이 구랍 27일 락서암 대웅전에서 '제3회 락서암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총 1320만 원으로 대학생 6명에 각 1백만 원, 고등학생 6명에 각 50만 원, 중학생 4명에 각 3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이번 전달식에서는 특별장학생에게 특별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별장학생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락서암 수월 스님과 인연을 맺은 후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다. 수월 스님은 학생들에게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주변을 화합시키며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인재가 되 달라"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울산조계종聯,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대한불교조계종울산광역시사암연합회(회장 산옹, 이하 울산조계종연합회)가 구랍 29일 울산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성금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 성금품은 성금 1770만 원과 백미 10kg 500포(총 3천270만 원 상당)이며 울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성금과 백미는 불우이웃돕기로 회향된다.

울산조계종연합회는 울산지역 조계종 소속 38개 사찰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연합회 창립 후 매년 성금 및 쌀 기부를 통해 자비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지장정사, 초등학생 특별선물

울산 지장정사(주지 현우)가 구랍 25일 울산시 동구 홈플러스에서 방어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특별선물을 전달했다.

특별선물은 300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신발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26명을 선정해 전달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는 직접 울산시 동구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개인의 취향에 맞춰 마음에 드는 상품을 직접 선택했다.

강명희 방어진초등학교 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정정사 주지 현우 스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장정사 주지 현우 스님은 "연말연시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의미를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209
전화 053)657-0108 / 휴대전화 010-3390-2145
https://blog.naver.com/sm20815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실 현봉 근일
회주 남전 호성
주지 등운
고금당선원 입승 법관외 사부대중 일동
부주지 정우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도선 교무국장 혜산 재무국장 덕암
사회국장 함흥 호법국장 등화 포교국장 성민
산하기관 안내
선재어린이집 054) 855-6033
풍기어린이집 054)636-8016
안동청소년문화센터 054)841-2324
의성군노인복지관 054)861-1377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855-7801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 054)841-2324
안계노인복지관 054)862-7900
봉현어린이집 054)637-5179
연꽃어린이집 054)673-9108
연화보호작업장 054)633-6414
고운실비노인요양원 054)833-5900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054)634-3251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633-6415
최치원문화관 054)834-8200
의성지역재활센터 054)833-1225

고운사 42수 관세음보살(국립중앙박물관 전시중)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 | www.gounsa.net
전화 054)833-2324 템플스테이 054)822-6933

2022 謹賀新年 임인년
(사)한국불교선조계종
- 신년사 -

종정 혜 원
남과 비교하지도, 따지지도, 의심하지도 말며 오직 내 한마음 되살펴 봅시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자비광명의 새해가 일체 만물의 행복과 평화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흘려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이릅니다. 물처럼 나를 향해 내려오는 모든 것을 품고, 자신을 돌아보며 정진하는 새해에는 물소리 듣길 발원합니다.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전화 053)322-0567 / 팩스 053)322-0567